

칠갑산 지회를 찾아서



이상룡 | 본회 이사



칠갑산 지회
박철성 지회장



칠갑산 지회
차경환 사무국장

칠갑산지회는 지난 1981년 3월, 20여명의 회원으로 국립공원협회 칠갑산지회를 창립한 후 26년간 자연생태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을 하면서 칠갑산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한 때는 회원수가 5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매우 활동이 활

발하기도 했으며 회원들의 생활여건에 따라 그 수에 부침이 있었으나 꾸준하게 이어온 저력이 있어 비록 회원 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그 의욕만은 어느 지회보다 돋보인다.

그동안의 지회활동 흔적을 살펴보면 세미나 심포지엄 전국공원대회 참가와 함께 자체 친목을 위한 타지부 방문 등 그에 따른 많은 사업 실적도 빠뜨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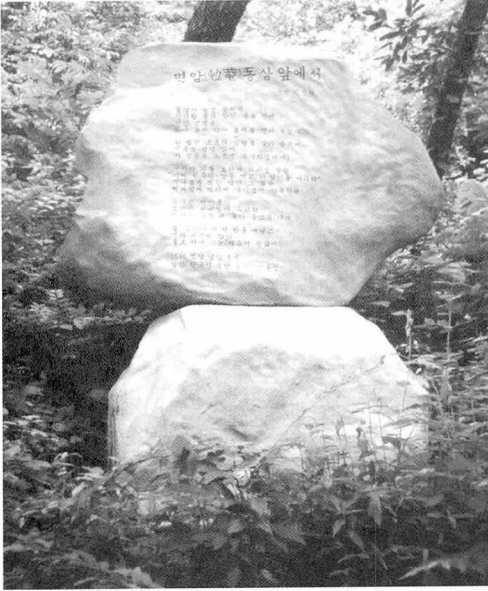
이처럼 최장수 지회로서 끊임없이 이어온 뒷면



좌로부터 차경환 사무국장, 박철성 지회장,
김규응 본회 중앙회장 (2007. 7. 13)



공발 때는 아낙네상 <박철성 작>



“면암동상 앞에서” 시비

에는 박철성 지회장과 더불어 호흡을 맞춰온 차경환 사무국장(고등학교 교장 퇴임)의 노고와 지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이무튼 칠갑산지회는 본회 소속 지회 창립 1번이며 도립공원이면서도 국립공원 못지않게 살아 움직이는 지회 운영을 해온 데는 지회장과 함께 임원 및 회원들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박철성 지회장에 대한 삶을 조명해 본다면 그는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태어나 평양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였으며 6.25동란이 일어나자 단신으로 월남했다.

그 후 1953년 속초에 “수복 기념탑(모자상)”을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30여점의 대형 조형 조각품을 만들었으니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부산 서면 노타리의 “직할시 승격 기념탑”과 대천 해수욕 광장에 세워진 “바다의 여인상” “울산 공업센터 기념탑” 경남 함안군 “3.1운동 기념탑” 외 칠갑산 인근에 “면암 최익현 선생의 동상”을 제작한 것을 계기로 농예원 조각 공원에는 “콩밭 매는 아

낙네상” 등 시비(詩碑) 및 조각을 세워 칠갑산 산자락에 새로운 볼거리 문화공원을 세워 놓았다.

대저 잘 사는 민족과 못 사는 민족의 차이는 그 시대에 얼마만한 민족문화를 창출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분명 박철성 조각가는 이 시대 민족문화의 한 부분을 창조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친자연주의자로서 자연보호 활동가로 한국자연공원협회 이사도 겸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곳에다 먹거리와 볼거리를 갖춘 휴식공간(칠갑산 산마루)을 마련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의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제 그의 연치(年齒)도 희수(喜壽)를 넘기고 보니 다른 욕심은 없고 칠갑산 기슭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가는 조각공원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칠갑산의 자연과 멋을 맛보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산수유꽃” 시비

그는 자연보호의 파수꾼이기 전에 조각가였다. 때문에 칠갑산의 수려한 풍광에 걸맞는 조각품을 접목시켜 농예원 조각공원을 만들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리라고 한다.

어쨌거나 26년이란 긴 세월을 칠갑산과 더불어 박철성 지회장의 이 같은 인생 여정을 보낸 결실

이라고나 할까 칠갑산지회 회원들의 뜻이 한데 모여 오는 10월에 칠갑산 조각공원에 그의 희수(喜壽)를 축하한 시비(詩碑)가 세워진다고 한다. 시조시인 이상룡박사가 쓴 “백학(白鶴) 같이”란 시조를 한덩이 돌에 세긴 시비가 그의 지난 세월의 삶이 더욱 빛나리라고 본다.

〈시비에 새겨진 시조〉

백학(白鶴)같이

- 朴七星 彫刻家 喜壽에 부쳐
솔미 李相龍

함경도 경성 고을
감모산 기슭에서

맑은 바람 마시면서
소년으로 자랐는데

오늘은 칠갑산 산마루에
학발(鶴髮)되어 서 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 세월(歲月) 그 몇 구비

밤마다 고향 그린 마음
조각품에 쏟아부어

속초의 수복기념탑
만리심(萬里心)을 달래고.

칠갑산 독립공원
보전(保全)의 역군(役軍)이며

면암선생 동상 제작
애국심 일깨우고

농예원 조각공원 다듬다
희수(喜壽)도 잊고 넘겼네.

칠갑산지회 회원 명단

2007. 7. 25 현재

지 회 장	박 칠 성	회 원	이 용 태
부지회장	윤 정 노	〃	정 철 호
사무국장	차 경 환	〃	이 원 형
감 사	고 봉 택	〃	최 광 환
감 사	최 장 업	〃	임 영 환
운영위원	조 휘 영	〃	이 현 주
〃	노 완	〃	김 흥 열
〃	김 영 춘	〃	임 호 빈
〃	한 상 봉	〃	한 상 완
〃	최 종 호	〃	최 천 락
회 원	흥 성 권	〃	이 재 용
〃	김 천 호	〃	이 상 기

